

책·캠핑·문화축제…광주 도심, 피서지 되다

물과학체험장·야간 도서관·북토크 등 8월 내내 다양한 콘텐츠
뇌과학 특별전·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캠핑·뮤직페스티벌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시가 8월 한달 광주도심을 피서지로 조성한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여 여름 휴가철 광주를 향한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더운 여름피서를 멀리 떠나지 않고도 책과 자연, 예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가족들과 함께 체험해보세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예술·역사·과학 체험형 전시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뇌과학 특별전-신기한 뇌세상’, ‘물과학체험장’, ‘돔영화제’ 등 문화행사와 ‘초록별 탐험대’ 등 여름방학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도 조상들의 삶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실감형 전시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에서는 특별 전시회로 ‘점, 선, 면’이라는 디자인의 기본 조형 요소를 통해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와 조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를 내년 3월1일까지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어린이문화원은 8월 말까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과 직업 체험을 결합한 ‘꿈꾸는 직업놀이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책으로 떠나는 여름휴가= 무더운 여름 인문학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강연·북토크 등 다채로운 도

■광주 도심 피서지	
예술·역사·과학체험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강연·북토크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ACC 도서관 무등·사직·산수 시립도서관
캠핑장	광주 시민의숲 야영장 패밀리랜드 카라반 캠핑장 승촌보 캠핑장
문화 행사	14회 빛고를 핸드메이드 페어 광주 에이스 페어 국악·재즈 ‘엑스뮤직페스티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서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자연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힐링 공간인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은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 이색 건축미 덕분에 ‘북강스’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도서관’은 야간 개관과 인문 강좌, 북라운지 공간을 통해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ACC도서관은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지만, 화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개관을 하고 있다.
무등·사직·산수 시립도서관에서도 작가와의 만남, 북토크, 전시, 인문학 아카데미 등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색다른 피서지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도심캠핑으로 무더위 극복= 광주 도심내 차량으로 2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캠핑장도 운영 중이다.
광주 시민의숲 야영장, 패밀리랜드 카라반 캠핑장, 승촌보 캠핑장 등은 여름철 휴식과 체험, 바비큐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색 캠핑 명소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여름휴가 문화로 즐기세요=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핸드메이드 아티스트와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낸 다양한 수공예 작품을 선보이는 ‘14회 빛고를 핸드메이드 페어’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방문객들도 직접 공예 체험에 참여할 수 있어 가족, 친구와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부터 31일까지는 뉴미디어·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2025 광주 에이스 페어(ACE Fair)’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국악·재즈·전통음악 등 세계 음악을 만나는 ‘엑스뮤직페스티벌’은 29-3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디자인의 새로운 흐름과 미학, 미래적 고민이 살아있는 세계적 디자인 축제인 ‘202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가 너라는 세계, 유 더 월드(YOU THE WORLD)’를 주제로 30일부터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



청소년이 만드는 여름
광주시 일국청소년문화의집(당근센터)은 지난 1~2일 여수청심국제해양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동아리 및 자치기구 연합캠프 ‘썸머캐치!~캐럿캐치!’를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4회차인 이번 행사에선 당근센터 내 댄스동아리, 청소년기후행동단, 미디어 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카페매니저 등에서 활동 중인 30명의 청소년이 함께 했다. <일국청소년문화의집 제공>

무등산에서 막걸리와 족욕까지! ‘출근한 김에 전국 일주!’

광주관광공사, 국내 기관과 지역 관광 공동 프로모션 실시

광주관광공사는 “12월 5일까지 제주·강원·전남·전북 등 전국 지방관광공사·재단과 함께 ‘출근한 김에 전국 일주!’를 슬로건으로 공동 위케이션 & 기업관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과 지역 기업, 기관,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제주 위케이션선과 함께 광주·강원·전남·전북 중 한 곳 이상에서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용 내역(신청서 및 영수증)을 제주관광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추점을 통해 총 200명에게

지역 특산품과 기념품 패키지를 증정한다.
광주관광공사는 휴식을 테마로 하는 ‘무등(無等)·산(For-est) 스테이 프로그램’으로 광주만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무등산 지오스테이(숙박)와 함께 무등산 막걸리, 족욕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미식 콘텐츠를 운영하고, 체험키트와 기념품도 제공한다. 프로모션은 온라인 복지몰(베네피아, 이지웰)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다.

광주관광공사 김진강 사장은 “이번 공동 프로모션은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으로 광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관광 상품과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방문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관광공사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수도권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대상 공동 위케이션&기업관광 설명회에서 무등산권 지오스테이 등 광주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 동물의료지원반 운영…폭염·폭우 피해 최소화

현장 출동·방역소독 등 시행

광주시가 지역 축산농가의 폭염피해 등을 막기 위해 동물의료지원반을 운영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기상이변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의료지원반’을 운영 중이다.
가축방역관, 공수, 축협 등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구성된 동물의료지원반은 폭염이나 집중호우 발생 때 농가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다.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임상·혈액검사를 통해 가축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긴급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가축 질병이 의심되거나 폭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의료지원반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와 관련 시설에 대해 매주 수요일 방역소독을 시행해 여름철 집중 발생하는 모기, 파리 등 해충을 제거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고온환경은 가축의 사료 섭취량 감소, 면역력 저하, 생산성 하락 등으로 이어지고, 폐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사전 조치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양질의 사료 공급, 차광막 및 단열재 설치, 스프링클러 활용 등을 통해 축사 내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
또 집중호우 시 침수·배수 불량으로 인해 질병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기적인 소독과 청결 유지로 유해 세균 또는 곰팡이 번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상공인 출산·임신 가정 50만원 특별지원

시, ‘육아응원패키지 시즌2’

광주시가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시즌2’를 선보인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KB금융그룹과 손을 맞잡고 임신 170가정, 출산 700가정 등 870가정에 각각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새 생명을 맞이하는 소상공인 가정의 초기 육아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광주시가 KB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총4억35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종사자) 가정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지난1월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출산한 가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공식 온라인 플랫폼에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확인서(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등을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개별 안내 문자로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아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